

(고객 인터뷰) ‘물가 오를 때, CPLB 추천해요’

2022. 7. 12.

김해영 고객(아이 셋 엄마) | 쿠팡 PB 제품 없었다면 많이 힘들었을텐데, 덕분에 생활비를 많이 아꼈어요. 아이들 키울때 필요한 육아용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는 편인데, 제가 생각보다 쿠팡 PB제품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. 알아보니까 가격도 저렴한데 품질도 좋더라고요. 아이들 키울 땐 쿠팡이 무조건 필요해요. 없으면 안 돼요!

한송이 고객(아이 둘 엄마) | 식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나갔었는데, 곰곰 덕분에 반으로 줄었어요. 로켓 배송이라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, 가격도 저렴한데 종류도 진짜 많아요. 특히 이 곰곰 너겟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. 제 아이들이 먹는 거라 엄청 많이 따졌어요. 쿠팡 덕분에 육아도 일도 두 배 더 편해진 것 같아요.

오다운 고객(대학생) | 곰곰 덕분에 한달 식비가 10만 원밖에 안나가요. 바쁘기도 하고 또 귀찮으니까, 평소에 인스턴트 식품만 먹었거든요. 그런데 쿠팡 곰곰을 알고부터 진짜 잘 챙겨먹어요. 조리해먹기 진짜 편하거든요. 곰곰 제품 덕분에 생활비를 많이 아꼈어요. 저같은 자취생들에겐 곰곰제품이 꼭 필요해요!

전성민 고객(클래식당 대표) | 식재료 가격 뿐만 아니라 식당 유지비 오르는 게 더 무섭죠. 장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주방용품 구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. 주방기구를 전부 코멧으로 맞춘 덕분에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. 이렇게 가격도 좋고 내구성도 좋은 제품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. 요즘 같이 물가 오를 때 코멧 없었으면 큰일날 뻔했어요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